# 신화의 재현방식을 통한 한국의 문화코드 연구
## - 드라마 <태왕사신기>, <구가의 서>, <도깨비>를 중심으로 -[1)]

김정현·박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코드를 연구하는 데 있어 일상매체이자 시대요소 반영에 민감한 콘텐츠인 텔레비전 드라마, 특히 한국의 전통적 신화를 변용하고 재현한 드라마에 주목한다. 이론적 고찰로서 박치완의 문화코드 개념과 뤼시앵 보이아의 상상계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논의된 이론은 드라마 <태왕사신기>(2007), <구가의 서>(2013), <도깨비>(2016-17) 사례를 분석하는 틀로 작용하며 지난 10여년간(2007-2017) 변화된 재현양상을 토대로 한국의 문화코드를 도출한다.

이러한 문화코드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문화예술의 기술융합이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역설적으로 인문학적 관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범세계적 접근성의 확장이 보편화되면서 자칫 세계적 보편화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재인식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키워드: 문화코드, 문화정체성, 상상계, 태왕사신기, 구가의서, 도깨비, 드라마, 전통신화재현

## 1. 들어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문화예술의 기술융합이 요구되는 특성에 따라 역설적으로 인문학적 관점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문화코드는 범세계적 접근성의 확장이 보편화되면서 자칫 세계적 보편화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민족의 문화정체성을 재인식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그 일환으로써, 일상매체이자 시대요소 반영에 민감한 콘텐츠인 텔레비전 드라마, 특히 한국의 전통적 신화를 변용하고 재현한 드라마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통신화를 재현한 드라마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텔레비전 드라마는 일상과 가까운 매체이자 대중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둘째, 신화는 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셋째, 신화의 비현실적 소재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몰입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게 만드는 구현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기존에 현실세계와 동일한 혹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 재현했던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변화된 환경에서 구현된 판타지를 통해 문화코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 지 탐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텔레비전 드라마 중에서도 한국 전통 신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인 <태왕사신기(太王四神記)>(2007), <구가(九家)의 서(書)>(2013), <도깨비>(2016-17)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론적 고찰로서 박치완(朴治玩)의 문화코드 개념과 뤼시앵 보이아(Lucian Boia)의 상상력의 세계 이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논의된 이론은 사례를 분석하는 틀로 작용하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의 문화코드를 도출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고찰

### 1) 문화코드와 정체성

---

1) A Study on the Culture Code of South Korea in a Way of Representation of Myth - Focused on TV Series <The Legend>, <Gu Family Book>, <Guardian: The Lonely and Great God>

국가의 문화코드를 정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코드를 하나의 대상으로 수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파이유(Rapaille)의 개념을 차용하면 '문화코드(Culture Code)'란 "우리가 속한 문화를 통해 일정한 대상에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의미"라고 정의할 수 있다[2]. 문화코드가 가치체계와 행동을 규정하는 집단적 무의식으로서 한 집단사회의 문화를 규정할 때, 이 집단적 무의식은 곧 집단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따라서 집단정체성과 문화코드는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한다. 박치완[3]은 집단의 문화정체성은 문화코드에 반영되고, 문화코드는 문화트렌드에 반영되며 이들은 모두 가변적 특성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트렌드가 비교적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문화코드나 문화정체성은 불가변한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세 층위는 유기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완전히 고정된 기체는 없다.

문화트렌드는 한 집단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기표이며, 문화코드 및 문화정체성은 집단 무의식 내에 존재하는 심연의 기의로 나타난다. 트렌드는 외부적 환경에 반응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그 변화는 문화코드와 문화정체성의 확대와 발현으로 나타나고, 변화된 트렌드는 다시 문화코드와 문화정체성으로 회귀 혹은 귀환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트렌드-문화코드-문화정체성이 일회적 연구로 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가변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2) 신화와 공동체의 삶과 문화

뤼시앵 보이아(Lucian Boia)는 비현실적인 것을 일컬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아니며, 신화는 "공동체에 내재하는 가치에 따라 이 공동체의 응집력을 확보하는 목표"[4]를 추구한다고 설명한다. 즉 신화는 집단이 추구하는 공동가치로서 집단적 무의식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는 "하나의 문화가 지닌 정체성의 가장 은밀한 것은 그 문화가 간직한 신화에 맡겨진다"[5]고 말하면서 신화가 단순한 비현실적 상상 그 이상의 의미로써 공동체의 문화의 근원을 형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사회의 집단 무의식과 내재된 기의를 신화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코드를 찾는 의미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보이아는 신화가 고대의 공동체를 지탱한 기반으로서 그 역할을 다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과 이성의 발전에 의한 이데올로기적 변화에 의해서도 신화의 의미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인간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욕구와 이상이 현대에서도 신화적 요소로 발현되기 때문이다. 현실과 대조되는 동시에 현실에 저항하는 기제로서의 이상을 그려내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세계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따라서 기록된 역사부터 구전된 기억, 지금의 이야기까지 신화가 연계되지 않은 이야기는 없으며, 이들의 관계를 잇는 지점에는 상상력의 세계가 존재한다. 현대의 신화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현실세계로 투영되는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따라서 그는 인간 삶의 역사와 환경 변화에 따른 이러한 변화를 염두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보이아가 강조한 "영속성과 변화 사이의 연결관계"는 바로 '지속되어 온 원형과 변화된 현대적 신화 사이의 연결관계'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드라마 <태왕사신기>, <구가의 서>, <도깨비>는 한국의 전통신화[6]를

---

2) 임두빈. 「'제이칭뉴'(jeitinho brasileiro)를 통해 본 브라질의 일상 문화코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1호, 2013. 55쪽.
3) 박치완.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그 연속성과 단절의 변화 추이 탐색」, 인문학논총, 제34집, 2014. 318쪽.
4) 뤼시앵 보이아, 『상상력의 세계사』, 김웅권 옮김, 동문선, 2000. 53쪽.
5) 위의 책, 2000. 54쪽.

재현하는 과정에서 현대의 신화로 구현됨을 보여주고, 현실의 집단 욕망과 가치를 함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영속성과 변화 사이의 연결관계”를 엮어내고 집단과 문화의 정체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 3. 드라마의 전통신화 재현방식

한국의 전통신화를 현대화한 드라마 <태왕사신기>, <구가의 서>, <도깨비>는 지난 10여년(2007-2017)의 기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재현방식의 특성을 보여준다. 첫째,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재현보다는 상상력의 영역이 강화되었다. <태왕사신기>의 경우와 같이 역사적 고증이 미약하다는 반발도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역사적 사실에 연연하기보다 전반적인 드라마 서사를 구성하는 허구적 상상력을 용인하는 추세이며 그 재현방식에 있어서도 역사적 시대나 설정을 모호하게 표현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구가의 서>나 <도깨비>에서는 역사극의 형식을 취하는 부분이 점차 배경적 측면이나 극히 일부에 한해 반영되었으며 역사적 사실보다는 상상력의 세계에 의존하여 극적 몰입을 증대하였다. 둘째, 보편적 영웅서사와 로맨스서사를 활용하여 현실세계를 투영함과 동시에 인간의 이상과 욕망을 구현하였다. <태왕사신기>는 건국신화와 영웅서사를 주로 전개하고 있으나 웅녀설화를 변용한 여성인물들을 앞세워 로맨스를 또 하나의 주요서사로 전개하였다. 반면 <구가의 서>는 로맨스 서사를 주로 하되 영웅 서사를 동시에 보여주기도 한다. <도깨비>에서도 로맨스와 영웅은 존재한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인간과 닮은 하급 신격의 모습을 묘사하고, 평범한 우리 주변의 영웅을 묘사함으로써 현실세계와 평범한 시청자와의 간극을 보다 좁히고 있다. 이와 같이 익숙한 장치를 통해 자칫 동떨어져 보일 수 있는 초월적 신화의 모습을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기 보다는 현실세계와 연결함으로써 시청자의 공감과 대중성을 확보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이미지로 자리잡은 “서사적 고정관념(narative stereotype)”[7]을 수정하고 긍정적 이미지의 전통적 신화원전에 대한 재현을 강화하였다. 물론 매력적인 서사 구현을 위해 신화원전을 선택적으로 반영하고 일부는 삭제하거나 변용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신화원전에 대한 재현은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다. <구가의 서>에서는 기존에 고정관념의 이미지로 자리잡은 공포이미지의 요괴 구미호에서 한국설화에 등장하는 신성한 동물신인 여우신으로 관념을 수정하였다. <도깨비>에서는 고정관념으로 자리잡혀 있었던 일본의 요괴인 ‘오니(おに)’ 이미지에서 한국의 전통적 부신(富神)인 도깨비의 이미지로 환원되었다.

위와 같은 세 재현양상은 운명개척에 대한 주체적인 인간의 의지가 강화됨과 삶·죽음·윤회·조화·권선징악 등의 철학적 사유에 대한 공감이 드러남을 암시한다. 또한 한국 전통문화의 고유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 이미지를 취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배제하고자 함과 권력층과 전능함, 비범함에 대한 이야기에서 민중신화, 민중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과 표현이 증대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보이아가 정리한 “역사적 변화에 적용된 상상력의 세계가 지닌, 본질을 포함할 수 있는 원형”[8](초월적 실재의 의식, ‘분신’·‘죽음’ 그리고 ‘내세’, 이타성, 통일성, 기원의 현재화, 미래의 해독, 탈주, 대립적인 것들의 투쟁)[9]을 내포한다. 인간의 강인한 운명개척의지는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과 환경을 거부하고자하는 욕망인 ‘탈주’가 반영

---

6) 신화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설화, 민담, 전설 등이 있는데, 본 연구자는 각각의 드라마가 건국신화, 수호신으로서의 여우신, 하위신격으로서의 도깨비를 구현하고 있음에 초점하여 세 드라마가 모두 한국의 전통신화를 재현하고 있다고 규정한다.

7) 권도경.「여우여신의 남신화에 따른 반인반호(伴人半狐) 남성영웅서사의 탄생과 드라마 <구가의 서>의 인간화 욕망 실현의 이니시에이션」, 한국학연구, 제48집, 2014. 36쪽.

8) 뤼시앵 보이아, 앞의 책, 2000. 39쪽.

9) 위의 책, 2000. 39쪽-48쪽.

되었으며, 세 드라마 모두에서 동양적 사상에 기초한 '죽음과 내세'에 대한 사유를 함의하고 자아와 타인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타성'에 대해 재고하게끔 한다. 또한 한국 전통신화에 대한 회복의지는 "우월한 본질의 어떤 실재를 향한 완강한 갈망"[10]을 드러내며 민족 기원에 대한 현재적 가치를 조명하고자 하는 '기원의 현재화'를 보여준다. 왕이나 권력계층 혹은 비범한 인물에 대한 영웅적 존재에서 평범한 일상의 영웅으로 무대가 옮겨지는 것은 이미 "우리 시대에 건국 신화보다 혁명의 신화가 우세"하며 "신화가 '집단화되고', 집단적 영웅이 개인보다 우세하게 된다"고 지적한 보이아의 이론과 맞닿아 있다[11]. 이는 결국 사회의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과 타자에 대한 시선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재인식으로 이어지는 '이타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위 사례에서 강조된 '이타성', '탈주', '내세', '기원의 현재화'는 단일적이기 보다 타 원형들과 복합적인 역학기제로 작용한다.

왜 우리의 무의식은 '강인한 인간의지', '도덕적 인간', '민중의 이야기', '민족적 우월성'에 대한 갈망에 이끌렸을까. 상상력의 세계가 현실세계와 분립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연계된다는 사실을 염두하면, 이는 '공동체'에 대한 갈증으로 귀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문화코드로 대변되는 공동체 의식은 굳이 부연하지 않더라도 많은 측면에서 점차 사그러들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러한 현실이기에 무의식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특히 바람직한 공동체에 대한 염원이 반영되었고, 이것이 다양한 원형과 트렌드로 혼합되어 재현되었다고 결론할 수 있겠다.

## 4. 나오며

논의하였듯이 문화코드는 문화정체성,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고는 TV드라마의 세 사례에서 전통신화를 재현하는 방식으로부터 내재된 원형과 심층적 기의를 도출하고 문화코드를 규정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상상력의 세계와 이를 이루는 원형은 이러한 도출에 근원이 되는 분석의 틀로써 작용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자는 한국의 문화코드를 '바람직한 공동체의식'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코드 연구의 일환이며, 문화코드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지속적이고 다양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술의 발전과 적용이 급부상하고 세계가 단절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와 정체성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코로나로 인한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권도경.「여우여신의 남신화에 따른 반인반호(伴人半狐) 남성영웅서사의 탄생과 드라마 <구가의 서>의 인간화 욕망 실현의 이니시에이션」, 한국학연구, 제48집, 2014. 33-70쪽.

롤랑 바르트, 『현대의 신화』,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동문선, 1997.

뤼시앵 보이아, 『상상력의 세계사』, 김웅권 옮김, 동문선, 2000.

박치완. 「한국인의 문화유전자, 그 연속성과 단절의 변화 추이 탐색」, 인문학논총, 제34집, 2014. 307-341쪽.

임두빈. 「'제이칭뉴'(jeitinho brasileiro)를 통해 본 브라질의 일상 문화코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11호, 2013. 53-74쪽.


10) 뤼시앵 보이아, 앞의 책, 2000. 91쪽.
11) 위의 책, 2000. 243쪽-244쪽.